

## 우도 신궁의 역사와 신화

우도 신궁은 예로부터 신성시하던 장소에 위치합니다. 현재 신이 머무는 건물인 신덴이 있는 동굴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곳이 신이 머무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역사에 이 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해인 782 년은 가이큐라는 승려가 신덴을 유지하고자 불교 사원을 건립한 해였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연안 지방)의 번주이자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의 보호를 받아 신덴의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이후 이토 가문이 신덴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덴 또한 이토 가문에 의해 1711 년에 재건축되었습니다.

혼덴에는 범종 모양의 창문과 중국, 인도의 생물을 묘사한 조각 등 불교의 요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신도(神道)와 불교 간의 종교적인 전통과 장식 양식의 융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왔으며, 불교와 신도의 신앙과 관습은 에도 시대 말엽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현재, 순수한 신도의 성지로 자리잡은 우도 신궁은 신화에서 말하는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아버지로서 일본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신화에서는 사냥의 명인이었던 야마사치비코와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야마사치비코는 도요타마히메의 출산을 위해 오두막을 만들게 되는데, 도요타마히메는 가마우지의 깃털로 만든 지붕이 완성되기도 전에 진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요타마히메는 오두막에 들어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아 달라고 야마사치비코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된 야마사치비코는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가 거대한 상어로 변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정체를 들켜버린 도요타마히메는 갓 태어난 아기를 남겨두고 슬픔에 잠긴 채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아기에게는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 즉, ‘가마우지의 깃털 지붕이 완성되기도 전에 태어난 자’라는 뜻에서 유래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전승에 따르면 출산한 장소가 지금의 우도 신궁이 지어졌던 동굴 안이라고 합니다.